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웹사이트]

[\\*dokdo.mofa.go.kr](http://*dokdo.mofa.go.kr)

## 대한민국의 최동단, 우리의 땅 독도

### <독도의 위치>

독도의 주소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 번지이다. 독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 25,517㎡)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해상에 있다.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는 동경 131도, 북위 37도에, 서도는 동경 131도, 북위 37도에 위치한다. 동도·서도간 거리는 151m로 좁은 수도(水道)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 98.6m, 면적 73,297㎡이고, 서도는 해발고도 168.5m, 면적 88,740㎡이다.

### <독도의 역사>

일제강점기의 시작이 된 을사조약(일본이 한국과 강제로 체결한 불평등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바꾸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계속해서 근거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한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2005년 3월 16일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같은해 3월 17일 일반인에게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독도의 전경 - 사진작가 배영찬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웹사이트]

\*[dokdo.mofa.go.kr](http://dokdo.mofa.go.kr)

## 독도를 지킨 사람들, 독도의용수비대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부터 약 3년 8개월 동안 독도에 무단 침입한 일본에 맞서 독도를 지킨 순수 민간 조직이다.

### <설립 배경 및 과정>

독도 의용 수비대가 결성되기 직전인 1950년대 초반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국가 전체가 전쟁에 휘말려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53년 일본은 한국의 혼란을 틈타 세 차례에 걸쳐 독도에 무단 상륙했다. 이들은 1948년 미군의 폭격 연습 과정에서 희생된 한국 어부의 위령비를 파괴하고 독도에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島根縣隱岐郡竹島)'라는 나무 표지판을 세우는 등 불법 영토 침략을 공공연히 저질렀다.

독도 의용 수비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 침탈 행위가 계속되자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 소유권 주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독도 근해에 나타나는 일본인들을 축출함으로써 일본 어선의 독도 근해 어로 작업 방지 및 울릉도 주민의 생존권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한국전쟁 참전 후 부상을 입고 제대한 홍순철은 고향인 울릉도로 돌아와 미역을 따기 위해 독도에 갔다가 일본이 독도를 침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1953년 독도 의용 수비대를 조직했다. 설립 당시 수비대에는 모두 45명의 청년들이 참가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한국전쟁 참전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후 수비대원들 몇몇이 탈퇴하면서 최종적으로 수비대에 남은 인원은 33명으로 기록돼 있다.

### <활약>

1953년 6월 일본 오게(大毛) 수산고등학교 연습선 지토마루 호를 독도 서도 150m 해상에서 나포해 이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으며, 같은 해 7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독도에 접근하자 위협사격을 가해 이들을 격퇴시켰다. 이 싸움이 수비대가 일본에 맞서 벌인 첫 전투이다.

1954년 6월 홍순철 대장 등은 독도 동도 바위에 한국령(韓國領)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같은 해 8월 23일, 독도에 접근하려는 일본 순시선을 총격전 끝에 다시 격퇴, 같은 해 11월 21에는 1,000t급 일본 순시선 3척 및 항공기 1대와 총격전을 벌여 역시 격퇴하였다.

1956년 12월 30일, 무기와 임무를 국립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독도의용수비대는 독도를 지키는데 전념하였다. 1956년 독도수비대는 기존의 업무를 국립 경찰에 넘기고 사실상 임무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들 수비대원들은 독도 방파제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독도 지키기 및 독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독도의용수비대

[출처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dokdofoundation.or.kr](http://dokdofoundation.or.kr)

## 독도의 아픈 역사, 강치의 멸종

강치는 동해안에서 주로 서식한 포유류이며 처음 발견한 사람은 미국인 피터스(Peters)이다. 독도강치의 학명은 일본강치(*Zalophus japonicus*)인데, 이는 독도강치를 최초학술기록으로 남긴 피터스가 강치를 처음으로 발견한 장소가 일본연안이었기 때문이다.

강치는 피터스가 발견하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연안에 서식하고 있었다.

실학자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울릉도의 특산물로 '가지어(可支魚)'가 있다고 했는데, 가지어는 강치의 옛말이다. <증보문헌비고>와 <오주연문장전산고>, <만기요람>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강치의 가죽은 일본 상류층들에게 인기라서 비싼 값으로 거래되었다. 이러한 강치의 수익성에 주목하고 일본 어부들은 본격적으로 독도에서의 강치 잡이 활동을 시작했다.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가 설립된 이후 더 많은 강치들이 잔인하게 포획되었다. 또한 강치 잡이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집중적으로 행해졌는데 한 해에만 2803마리를 잡았다. 이 탓으로 1910년 이후부터는 포획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하여, 해방 이후가 되면 몇 마리 남지 않게 된다. 해방 이후 몇 마리 남아있던 강치들은 점차 개체수가 줄어들어 1972년 1마리가 생포된 이후로는 독도와 동해 연안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강치의 모습  
[출처 : 서울신문]  
\*seoul.co.kr



강치가죽으로 만든 가방  
[출처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kmj2474958

# Dokdo,

## Beautiful Island of Korea

[Sources : Dokdo websit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Korea]

[\\*dokdo.mofa.go.kr](http://*dokdo.mofa.go.kr)

#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Dokdo

## <The location of Dokdo>

The address of Dokdo is 1 to 96, Dokdo-ri, Ulleung-eup, Ulleung-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Dokdo is also called Dok-sseom (Dok-island.) The area is approximately 187,554 square meters. (Dong-do, the Eastern island, is roughly 73,297 square meters, Seo-do, the Western island, is roughly 88,740 square meters and annexed islands are totally 25,517 square meters.) Dokdo is located at 87.4km southeast of Ulleungdo. It is



A full scene of Dokdo

- Photo by Yeongchan Bae

[Sources : Dokdo websit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Korea]

\*[dokdo.mofa.go.kr](http://dokdo.mofa.go.kr)

volcanic island and it consists of two main islands, Dong-do and Seo-do, and 89 surrounding islets. Dong-do is located at 131 degrees east longitude, 37 degrees north latitude. Seo-do is located at 131 degrees east longitude, 37 degrees north latitude. The distance between the east and west islands is 151 meters, creating narrow water roads. Dong-do is 98.6 meters above sea level, and Seo-do is 168.5 meters above sea level.

## <History of Dokdo>

Japan-Korea Treaty of 1905 is the beginning of Japanese colonial era. In the treaty, Japan has unilaterally turn Dokdo to Takeshima[竹島]. Japan transferred Dokdo to Shimane Prefecture[島根県], and up to now, Japan has claimed the groundless dominium of Dokdo.

March 16th, 2005, council of Shimane prefecture passed an ordinance which make February 22 to 'Takeshima Day', in spite of the strong opposition of Korea. In the same year, against this, the Korean government allowed people to visit Dokdo from March 17 on.



# The people who guard Dokdo, Dokdo Volunteer Garrisons

Dokdo Volunteer Garrisons protected Dokdo from Japan for about three years and eight months from 1953,

## <History and organization>

In 1953, just before the end of the Korean War, Japanese on Dokdo three times in the wake of the turmoil in Korea. They destroyed the Korean fishermen's monument and publicly attacked illegal territorial aggression in Dokdo by constructing a wooden sign called "Shimane Prefecture Oki-gun Takeshima (島根縣隱岐郡竹島)".

Dokdo Volunteer Garrisons was established to prevent Japan's illegal occupation of Dokdo and to prevent the Japanese fishing vessels from working in the offshore islands of Ulleungdo and It was organized to prevent Japanese fishing vessels from working on offshore islands and to protect the livelihood rights of Ulleungdo residents. Hong, who was injured after the Korean War, returned to his hometown of Ulleungdo, He went to Dokdo and witnessed that Japan invaded Dokdo, and in 1953 he organized the Dokdo islands.

At the time of the foundation, there were 45 young men in the garrison, most of whom were Korean War veterans. Since then, some garrison crews have left and only 33 remain in the garrison.

## <Achievements>

In June 1953, Japan's Ogate Fisheries Senior High School training ship Zito Maru was sunk by Dokdo Volunteer Garrisons at Dokdo Island 150 meters above sea level. When the Maritime Security Service of the Maritime Security Service approached Dokdo in July of the same year, the Dokdo Volunteer Garrisons repelled them by threatening them. This fight is the first battle where the garrison defeated Japan.

In June 1954, general Hong Soon-Chul inscribed Korean territory on the rocks of Dokdo. On August 23 of the same year, Japan repulsed the Japanese patrol boat approaching Dokdo, and on November 21 of the same year, it repulsed the ship with three Japanese patrol boats and one aircraft.

On December 30, 1956, until the transfer of weapons and missions to the National Police, the Dokdo Garrison was committed to defending Dokdo. In 1956, the Dokdo Garrison handed over the existing work to the National Police and was actually finished. Afterwards, however, these garrison members also suggested various measures to protect the Dokdo , such as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of a Dokdo breakwater.



Dokdo Volunteer Garrisons

[Sources : A commemorative business association of Dokdo Volunteer Garrisons]

\*[dokdofoundation.or.kr](http://dokdofoundation.or.kr)

## The painful history of Dokdo, the extinction of Dokdo Zalophus

Dokdo Zalophus is a mammal living mainly on the east coast, the person who discovered for the first time is Peters. The scientific name of Dokdo Zalophus is the Japanese monkey (Zalophus japonicus), because the place where Mr. Peters (Peters), the American who left Dokdo Zalophus as the first academic record, discovered Dokdo Zalophus for the first time was the coast of Japan .

Dokdo Zalophus inhabited the east coast of Korea and Ulleungdo (Ullurdo) on the coast of Dokdo before the discovery by Peter. The " Seonghosaseol" written by a scholar of Joseon is written in the form of Dokdo Zalophus.

Also <Jeungbomunheonbigo>, <Ojuyeonmunjangjeonsango> and <Mangiyoram> are written in the form of Dokdo Zalophus.

The leather of the Dokdo Zalophus was popular with the Japanese upper class and was traded at an expensive price. Paying attention to the profitability of these Dokdo Zalophus, Japanese fishermen started catching them. Since the Dakesima eoryeopapja company was established, more Dokdo Zalophus were brutally captured.

In addition, the catching of fishes was done intensively from 1904 to 1910. Sadly 2803 were caught in a year. Because of this, after 1910, the capture number began to sharply decrease, leaving few after the liberation.

The Dokdo Zalophus, which had remained after the liberation, gradually decreased in population, and after the capture of one in 1972, they completely disappeared from Dokdo and the East Sea coast.



Dokdo Zalophus

[Source : Seoul newspaper]

\*seoul.co.kr



A bag made of steel Zalophus leather

[ Source: Naver Blog ]

\*blog.naver.com/kmj2474958



韓国の美しい島、

独島

[出典：大韓民国の外交部独島サイト]

[\\*dokdo.mofa.go.kr](http://*dokdo.mofa.go.kr)

# 大韓民国の領土、独島

## <独島の位置>

独島の住所地は慶尚北道鬱陵郡鬱陵邑独島里1~96番地だ。ドクソムとも呼ばれ、面積は18万7,554㎡(東島73,297㎡、書道88,740㎡、付属も25,517㎡)だ。鬱陵島から東南方向へ87.4キロ離れた海上にある。東島(東島)・書道(西島)及びその周辺に散らばっている89つの岩の島となった火山島である。トンドは東京131度、北緯37度に、書道は東京131度、北緯37度に位置する。東島・西島間の距離は151mで狭いことも(水道)を成す。トンドは標高98.6m、面積73,297平方メートルであり、書道は海拔高度168.5m、面積88,740平方メートルだ。

## <独島の歴史>

日帝強占期の始まりとなった乙巳条約(日本が韓国と強制的に締結した不平等条約)で、一方的に独島を竹島[竹島]に変えて島根県[島根縣]に編入し、継続して根拠のない、独島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日本島根県議会は韓国の強力な反対を押し切って2005年3月16日、毎年2月22日を'竹島の日[竹島の日本]と決める条例案を可決した。これに対抗して韓国政府は、同年3月17日、一般人に独島訪問を全面許可している。



独島の全景-写真作家ベヨンチャン

[出典：大韓民国の外交部独島サイト]

# 独島を守ってきた人たち、 独島義勇守備隊

1953年から約3年8ヵ月間にわたり独島に無断で侵入した日本に対抗し、独島を守った純粋な民間組織である。

## <独島義勇守備隊の設立背景と過程>

独島義勇守備隊が結成される直前の1950年代序盤、韓半島では韓国戦争が繰り広げられ、国家全体が戦争に巻き込まれていた。戦争が終わる直前の1953年、日本は韓国の混乱に乗じて三回にわたって独島に無断上陸した。彼らは1948年の米軍の爆撃練習の過程で犠牲された韓国の漁師の慰霊碑を破壊し、独島に'島根県隠岐郡竹島(島根県がウング郡独島)'という木の標識を立てるなど、不法領侵略を公然と犯した。

独島義勇守備隊は、独島に対する日本の不法侵奪行為が続くや、日本のとんでもない独島の所有権主張を根源的に遮断して、独島近海に現われている日本人たちを追放することにより、日本漁船の独島近海漁労作業防止及び鬱陵島住民の生存権の保護を目的に組織された。

韓国戦争参戦後負傷を負って除隊した洪淳七(ホン・スンチル)は、故郷である鬱陵島に行ってワカメを取ったために、独島に行って日本が独島に進入するのを目撃して、1953年、独島義勇守備隊を組織した。

設立当時、守備隊には、計45人の青年たちが参加しており、これらの大半が韓国戦争参戦経験がある人物だった。その後、守備隊員何人が脱退し、最終守備隊に残った人員は33人と記録されている。

## <独島義勇守備隊の業績>

1953年6月、日本来るように(大毛)水産高等学校練習船じと床の号を独島書道150m海上で拿捕し、彼らを日本に送り返し、同年7月、日本海上保安庁所属の巡視船が独島に接近すると、威嚇射撃を加えこれらを撃退させた。この戦いは守備隊が日本に対抗して行った初の戦闘だ。

1954年6月洪淳七(ホン・スンチル)大將などは独島の東島の岩に韓国領(韓國領)という文字を入れた。同年8月23日、独島に接近しようとする日本の巡視船を銃撃戦の末に再び撃退、同年11月21日には1,000t級の日本の巡視船3隻や航空機1台と銃撃戦を繰り広げ、やはり撃退した。

1956年12月30日、兵器と任務を国立警察に引き継ぐまで独島義勇守備隊は、独島を守ることに専念した。1956年に独島守備隊は従来の業務を国立警察に引き渡して事実上の任務を終えた。しかし、以降も、彼ら守備隊員たちは、独島防波堤設置を政府に建議するなど、さまざまな形の独島守護および独島を作る運動を展開していった。



独島義勇守備隊

[出典：独島義勇守備隊記念事業会]

\*dokdofoundation.or.kr

## 独島の悲しい歴史、アシカの絶滅

アシカは東海岸で主に生息した哺乳類であり、初めて発見した人はピータースだ。独島アシカの学名はニホンアシカ (*Zalophus japonicus*)であり、これは、独島アシカを最初の学術記録で残した米国人・ピータース氏(Peters)がアシカを初めて発見した場所が日本沿岸だったからだ。

アシカはピーターが発見し相当前から韓国東海岸と鬱陵島(ウルルンド)、独島沿岸に生息していた。実学者十字利益の<ソホサソル>では、鬱陵島の特産物として'持って(可支魚)'がある、というのは、持ってはアシカの昔の話だ。 <増補文献備考>と<五洲衍文長箋散稿>、<満期要覧>にも似たような内容が記録されている。

アシカの皮は日本の上流層に人気なので高値で取引された。

このようなアシカの収益性に注目して日本の漁師たちは本格的に独島でのアシカ漁活動を開始した。竹島オリョプハプ子会社が設立されて以降、より多くのアシカたちが残忍に捕獲された。また、アシカ漁は1904年から1910年まで集中的に行われたが、一年だけで2803匹を捕まえた。このために1910年以降からは捕獲数が急激に減り始めて、解放以後になると、何匹残らなくなる。解放以後、何匹残っていたアシカは徐々に個体数が減り、1972年1匹が逮捕されて以降、独島や日本海沿岸から完全に姿を消した。



アシカの真実

[出典：ソウル新聞]

\*seoul.co.kr



アザラシの皮で作ったカバン

[出典：ネイバーブログ]

\*blog.naver.com/kmj2474958